

시·도 접점에 R&D 협력체계 구축...특화산업 집중 육성을

호남, 상생이 미래다
민선 6기
광주일보의 제안

<3부> 성장동력 함께 키우자

- ① 자동차 산업
- ② 문화콘텐츠 산업
- ③ 산업의 융·복합화

광주-첨단의료, 전남-신재생에너지, 전북-탄소

지역간 공동사업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·공동 마케팅

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인 '5+2 광역경제권'은 대표적인 호남 차별 정책이었지만, 호남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산업 간 교류·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. 그러나 광역경제권으로 묶였던 광주·전남·전북은 사무처장 인선, 사무실 위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'감정의 골'만 깊어지는 결과만 남긴 채 사실상 중지를 찍었다. 다만 광주와 전남, 전북이 광역 및 지역 선도산업과 특화산업을 정해두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적 특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향후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넓혔다.

당시 광역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시스템), 라이프케어(바이오 모뎀, 바이오 활성소재), 광·융·복합(광부품 및 시스템, 신 광원조명), 친환경 수송기계(친환경 차량 및 부품, 그린·레저선박) 등이었다. 또 지역 특화산업으로는 광주가 스마트가전·복합금형·생체의료용소재(부품·지식데이터·디자인), 전남은 구조기능 세라믹스·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·해양기자재부품·고기능성소재·금속소재 가공, 전북이 자동차 기계 생산 기반·경량소재부품·향토기능성식품·인쇄전자·에너지저장장치부품 등이 선정된 바 있다.

여기에 민선 6기 들어 전북은 신 산업으로 탄소산업을 거론했다. 탄소는 철보다 무게가 5분의1인데도 강도는 10배나 돼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태양광, 자동차,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구체적인 품목에는 탄소나노튜브, 탄소섬유, 활성탄소, 인조흑연, 카본블랙 등이 있다. 광주는 첨단의료,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,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민선 6기 핵심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전문가들은 광역 선도산업, 지역 특화산업, 민선 6기 주력산업 등 이미 거론된 산업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광주·전남·전북이 이미 구축된 R&D 기관들의 교류·협력을 시작으로 산업 간 융합 및 복합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각 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, R&D 기관의 연구수행 능력, 각 지자체의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·검토한 뒤 단계 간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융·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.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"호남 광역경제권으로 묶인 이후 전남 및 전북 테크노파크 간 교류가 시작됐으나 지역 간 갈등과 마찰 속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"며 "호남 상생의 분위기가 되면 각 지자체의 지원 속에 새로운 산업 발전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테크노파크 간 연계에서 시작돼 ETRI, 광기술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전자부품연구원, 고등광기기술연구소, 식품산업연구원, 생물약리연구원, 나노바이오연구원, 신소재산업지원센터, 전북자동차기술원, 전북과학기술원 등 개별 R&D 기관의

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. 광주·전남의 접점에 자리한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처럼 광주·전남·전북의 접점을 이러한 산업 융합 및 복합의 장으로 구축하는 등 좋은 선례를 통해 영남·충청권과 다른 산업지도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. 전남대 최지호 교수는 "지역 간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발굴해 지역상생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"며 "지금까지 특정 지역 내에서 진행돼 온 제품·기술·서비스·산업을 지역 간 제품과 제품, 기술과 기술, 서비스와 서비스, 산업과 산업 간의 융·복합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도가 중요하다"고 강조했다. 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

교황의 선택 '쏘울'

8월 14~18일 한국 방문 기간 이용

오는 8월14일부터 닷새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 기간 동안 기아자동차 '쏘울'을 이용한다. 정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"교황이 방문 기간에 탈 차종이 기아차 쏘울로 결정됐다"고 전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취임 뒤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따라 방문 때도 가장 작은 급의 한국차를 타고 싶다는 뜻을 한국천주교 교황방한준 비우림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/임동률기자 exian@kwangju.co.kr



쏘울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아차의 대표 수출 차량이며 배기량 1600cc급으로, 소형 또는 준중형 차로 분류된다. /임동률기자 exian@kwangju.co.kr



여수 돌산~화태도 연도교 마지막 상판 연결

지난 25일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연도교의 61번째 마지막 상판이 크레인을 이용해 연결되고 있다. 이 연도교는 길이 1345m, 주탑 높이 130m이며 내년 말 완공된다. 국도 77호선 돌산~화태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연도교외에 접속교, 육상교량 1개소 등 총 4km를 왕복 2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. <익산국토청 제공>

靑 문화전당, 내년 9월 4일 전면 개관

국립아시아문화전당(문화전당)이 내년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(U대회)에 맞춰 부분 개관한 뒤 9월4일 전면 개관한다.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2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"오는 2015년 9월4일 문화전당을 전면 개관하되, 같은 해 7월 U대회 개막에 맞춰 일부 시설(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, 창조원 복합 5관)을 부분 개관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김 단장은 "광주에서 U대회에 맞춰 문화전당을 개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, 국제적인 행사가 겹치므로써 숙박시설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전면개관 일정을 9월로 잡았다"고 설명했다. 단, U

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, 문화전당을 알리기 위해 부분개관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. 문화중심도시 추진단(이하 추진단)은 개관일정에 맞춰 오는 8월 중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(전시·공연, 운영프로그램)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 또 오는 10월 완공되는 문화전당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8월 29일~30일까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옥상에서 월드뮤직페스티벌도 개최한다.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공정률은 94%를 유지하고 있다. /윤영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여름휴가, 남해안으로 길~게 간다

국토부 2005~2014년 하계휴가 통행 특성 변화 분석

8월말까지 분산...피서객 5% 늘고 도로 정체 30분 증가

전남 등 남해안을 찾은 여름철 휴가객이 10년 만에 4%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때문에 휴가기간이면 서서울~목포구간의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소요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 27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2005~2014년 하계휴가기간 통행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 예정

지로 지난 2005년에는 전남 등 남해안권이 15.7%에 그쳤으나 올해는 20.0%로 4.3%포인트 늘었다. 이 때문에 2005년 여름 휴가기간 서서울~목포구간 고속도로 최대소요예상시간은 5시간55분이었으나, 지난해에는 6시간20분으로 25분이나 늘었다. 반면 같은 기간 휴가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

경시간은 6시간25분에서 5시간50분으로 35분 단축됐다. 이른바 휴가 피크 시즌인 '7월 마지막 주~8월 첫주' 사이에 휴가지로 떠난 비중은 2005년 71.4%에서 올해 60.3%로 낮아졌다. 반면 '8월 둘째주 이후'의 비율은 같은 기간 7.1%에서 28.3%로 증가해 여행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. 올해 당일과 1박 2일 휴가 비율은 13.7%로 2005년보다 4.9%포인트 감소했다. 그만큼 2박 3일 이상의 장기 여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 /박진표기자 lucky@

남해안 '적조관심주의보'

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조관심(적조생물 출현)주의보가 발령됐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시 하정면 개도~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구간과 경남 전 연안에 적조관심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. 이들 해역에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1개체/ml 이하로 저밀도지만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다. 적조생물이 바람이나 조류를 타고 연안으로 흘러들어 가서 집적되면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현주의보를 내린 것이다. /여수=김창희기자 chkim@kwangju.co.kr

밝은광주안과

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

-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
-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
-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
- '레인드롭'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

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.

분 야 : 간호조무사, 검안사, 코디네이터(데스크,상담)
조 건 : 성별, 나이, 경력 무관
담당자 : 062) 351-9934

1566-9988

신세계백화점 대극성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

▲ 운암동 방면
◀ 상무지구 방면

신세계백화점

밝은광주안과

앞으로의 금융! 신협이 함께 합니다.

하나로대출

↑ 한도는 높게
Up&Down
↓ 금리는 낮게

집 담보도
상가 담보도
전세보증금 담보도
자동차 할부금 대출도
카드론·현금서비스도

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

추천 정부보증대출 햇살론 최고 2,000만원

광주원광신협

공동점 227-4474 금호점 383-4474 풍암점 653-4474

정통 주역사주

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.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.

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**주역의 종합본**

저자 서상덕 (전 교육연구원) 석사

1. 필사본
2. 정가 : 32,000원(택배비 포함)
3. 구입문의: 010-4211-2146
정확한 우편번호, 주소, 성명 전화번호 명시
4. 불법 복제를 금함